

1. 이번 모임에서 좋았던 점

- 포스터 세션이 좋았다 ->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점
- 분과별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점
- 서로의 소속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.
- 장소가 좋았다.
- 예비 졸업생들의 경험과 조언이 좋았다.
- 모임의 체계를 잡고자 하는 의도가 좋았다.
- 포스터 상과 교통비 지원이 있어서 좋았다.

2. 이번 모임에서 아쉬웠던 점

- 프로그램 진행의 아쉬움
- 계획 없는 시간분배로 시간을 허비한다.
-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. -> 학교간의 대화 부족
- 포스터 세션 공간이 좁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다.
- 저녁 시간이 늦다
- 졸업자 발표한 사람들 선물이 없다
- 분과 별 모임을 별다른 계획이나 목적 없이 진행한 점, 의견 교류가 원활하지 못함
- 모임의 확실한 체계가 없다.
- 마이크가 안 나왔다.
-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.
- 항상 탁상공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.
- 리드할 사람 필요
- 젊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무언가 참신한 것이 필요한 데 학회나 다름 없다.
- 포스터 발표에서 분야 별 구분이 어려움
-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아쉽다.
-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고, 일정 및 내용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좋겠다.

3. 다음 모임에서 바라는 점

- 좀 더 알찬 프로그램
- 연구실 소개를 재미있게 해달라
- 전공에 상관 없이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필요
- 1박 2일로 길게 보고 싶다
- 기존의 학회나 세미나와는 차별되었으면 좋겠다
- 포스터 발표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
- 젊은이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해보자
- 본인 연구 성과, 결과가 아닌 기본적인 이론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다
- 시간표 잘 지키길
- 포스터 발표 이전 활동을 오전에 모두 끝내고 시간을 더 활용 가능하게

- 선배들의 조언/경험 듣고 싶다
- 더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,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
-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

4. 모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

- 친목도모 우선
- 균형잡힌 학술적인 내용과 친목도모
-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
- YAM 에서 초반의 모임의 목적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 취하면 좋겠다
- 각자의 특기를 배울 수 있도록
- 이대로도 좋다
- 서로 힘든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
- 학술적 측면 강화 -> 외부에서 보기에 존재감이 더 커질 듯, 모임을 회의적으로 보는 교수님들이 계시니
-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강연 늘리기
- 여름, 겨울 모이는 것 이외에 우주과학회 때도 짧게(저녁에) 모였으면 좋겠다.